#### 4월 5일(월) / 삿 7-9

- ▶ 내용요약: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처음 기드온에게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만 이천 명이나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대부분을 돌려보내시고 단 삼백 명만으로 승리를 얻게 하셨다. 8장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징벌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9장에는 기드온이 죽은 후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델렉의 폭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아비델렉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세계의 왕이 되었으나, 이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
- ▶ 질문 : 기드온은 몇 명의 용사와 함께 싸웠는가? (7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삼만 이천 명의 병사들을 돌려보내시고, 단 삼백 명을 통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전쟁의 승리를 예측하기 위해 군사력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 4월 8일(목) / 삿 19-21

- ▶ 내용요약: 19장에서 한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던 중 어느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와 그 레위인을 요구했다. 이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겁탈하여 죽게 만들었다. 레위인은 시체를 쪼개어 이스라엘 열 두지파에 보냈고, 이 일로 인해 20장에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회의를 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셋째 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어 베냐민의 성읍들을 전멸하였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멸망 위기에 놓인 베냐민 지파를 위해여인들을 납치하여 베냐민 지파 남자들의 아내가 되게 했다.
- ▶ 질문 :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서 쓰라. (21장)
  - "이스라엘에 ( )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 생각하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처참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 4월 11일(일) / 삼상 4-6

▶ 내용요약: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 초반의 패배로 인해 낙심하던 이스라엘은 실로에 사람을보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다시 패전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도죽임을 당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세상을 떠났다. 한편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탈취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다. 그런데 다음날 자신들이 섬기는

#### 4월 6일(화) / 삿 13-15

- ▶ 내용요약: 사사기 13장부터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느날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을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의아내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1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와 혼인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협박을 받은 삼손의 아내가그 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말았다. 이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 삼십명을 죽이고 노략하였다. 이후 15장에서 삼손은 자신의아내를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것으로 인해 여우 삼백 마리로 블레셋을 공격했다.이로 인해 블레셋이 유다를 위협했고, 삼손은 동족에 의해 적의 손에 넘겨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만을 가지고 블레셋 진행을 초토화시켰다.
- ▶ 질문 :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음 구워한 나실인은? (13장)
- ▶ 생각하기 :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블레셋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 겨져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그 분을 신뢰할 수는 있다. 기억하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크다.

# 4월 9일(금) / 룻 1-4

- ▶ 내용요약: 룻기 1장에는 흉년으로 인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나오미와 그의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살아남게 되었다. 이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했으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2장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이삭 줍는 일을 하였고, 그러던 중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보아스는 롯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룻은 시어머니에 의해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임을 알게 되었다. 3장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고, 룻은 그대로 순종하였다. 4장에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인 사람이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포기하자 곧바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다. 이후 오벳에게서 이새가,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났다.
- ▶ 질문 : '기업 무를 자'로서 룻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2장)
- ▶ 생각하기 : 참된 회복은 희생적인 사랑과 인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제 앞에 엎드려 있었다. 이에 그들이 신상을 일으켜 세웠으나, 다음날에는 엎드려 있을 뿐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보았지만, 옮기는 곳마다 전염병이 퍼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결국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젖 나는소 두 마리로 하여금 그것을 끌게 하였다. 만약 그 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한 것으로 여기려는 것이었다. 소들은 곧장 국경지대인 벤세메스로

# 4월 7일(수) / 삿 16-18

- ▶ 내용요약: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들릴라라는 기생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내도록 들릴라에게 지시했다. 날마다 계속되는 여인의 재촉에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 결과 삼손은 머리카락을 밀린 채 힘없이 블레셋에 끌려가고 말았다. 삼손은 두 눈을 뽑힌 채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으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후 마지막힘을 내어 블레셋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진멸하고 숨을 거두었다.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미가는 먼저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던 한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나 18장에서 미가는 거주할 땅을 구하던 단 지파 사람들에 의해 레위인 제사장을 빼앗기고 말았다.
- ▶ 질문 : 삼손을 유혹하여 그의 비밀을 알아냈던 여인은? (16장)
- ▶ 생각하기 : 미가는 세속적인 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또한 레위인 제사장도 사명의식이 아닌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안정만을 추구하며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이처럼 탐욕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생활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 4월 10일(토) / 삼상 1-3

- ▶ 내용요약: 사무엘상 1장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한나는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땐 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2장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들은 늙은 아버지의 권면도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교만히 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엘리와 그의두 아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다. 엘리의 집과 달리 어린 사무엘은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앞에서 점점 더 세우심을 받았다.
- ▶ 질문 : 기도를 통해 아들 사무엘을 얻은 여인의 이름은? (1장)
- ▶ 생각하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움을 받았다.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야고보서 4:6과 베드로전서 5:5을 읽어보라)

향했고, 이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

- ▶ 질문 :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전하여 빼앗긴 것은? (4장)
- ▶ 생각하기 :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제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모형과 습관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